Comming Soon '속편 전성시대'

'스파이더맨' '캐리비안의 해적' '해리포터' '슈렉' '오션스 13'

할리우드 산 속편 영화의 위세가 무섭다. 조만간 개봉하는 '다이하드4' '판타스틱4'까지 합쳐지면 올 여름은 말 그대로 '속편 영화 전성시대'다.

최근 들어 한국 영화계에도 속편 제작 바람이 불고 있다. 요즘의 흐름은 조폭 코미디 '가문의 위기' '두사부일체' '조폭마누라' 등 기존의 코미디류로 한정됐던 데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속편영화가 각광 받는 이유는 충성도 높은 때문. 일정 수준의 작품성이 담보된 시리즈물은 관객들은 다른 작품보다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내기가 훨씬 수월하다. 특히 홍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영화 한편의 마케팅 비용이 20억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확보된 인지도는 제작사측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목이다.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작품은 '괴물 2'다. 1천 300만명을 동원하며 한국영화사를 새로 쓴 '괴물'의 제작사 청어람은 '괴물2'의 제작을 공식발표했다.

일단 시나리오와 감독을 맡았던 봉준호 감독이 2편의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청어람은 최근 '해부학 교실'의 메가폰을 잡은 손태웅 감독에게 '파일럿 영상' 제작을 맡긴 상태다. 2~3년 내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괴물2'는 손감독 이외에도 몇 사람의 감독이 파일럿 영상을 제작, 최종적으로 감독을 결정할 예정이다.

18세 관람가 영화로 6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타짜' 역시 속편 제작에 들어갔다. '타짜 2'는 허영만의 동명의 만화 중 4부 '벨제붑의 노래'를 영화화 한다. 전편의 최동훈 감독에 이어 메가폰을 잡게 된 이는 '지구를 지켜라'로 마니아 팬을 확보하고 있는 장준환 감독. 영화의 배경이 되는 필리핀에 머물며 현장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장감독은 카드와 카지노의 세계가 담긴 원작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구상중이다.

'타짜'의 판권을 모두 다 사들인 제작사측은 '타짜2'의 성공여부에 따라 나머지 작품도 영화화할 계획이다.

'섹시 코미디' 장르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던 '색즉시공' 도 속편을 준비중이다.

이번에는 주 무대를 수영부와 K1 동아리로 옮겨 전편의 코믹함과 섹시함은 그대로 이어가되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과 진솔한 사랑을 함께 보여줄 계획이다.

전편 주인공이었던 임창정과 출연자 중 이제는 주연급으로 우뚝 선 신이, 최성국, 유채영 등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원이 맡았던 여주인공으로는 드라마 '주몽'과 영화 '썸' 등에 출연했던 송지효가 캐스팅됐다.

손예진·송일국이 출연해 흥행에 성공했던 로맨틱 코미디 '작업의 정석'도 속편을 준비중이다. 연애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의 작업 기술을 유쾌하게 그려냈던 전편에 이어 속편에서는 '돌아온 싱글'들의 작업 기술을 생생하게 보여줄 예정.

'괴물' '타짜' '색즉시공' 속편 제작중
코미디류 벗어나 모든 장르로 확산
높은 인지도 무기…할리우드와 맞짱

'색즉시공' 속편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송지효.

속편을 준비중인 작품들이 흥행에 성공한 작품인 데 비해 '화산고'는 조금 특별하다.

장혁·신민아·김수로·권상우 등이 출연했던 학원 판타지물 '화산고'는 흥행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6년만에 다시 속편으로 제작된다.

컴퓨터그래픽 등을 활용한 화면과 무협학교라는 독특한 소재로 당시 화제가 됐던 '화산고'는 '범죄의 재구성' '타짜' 등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최동훈 감독이 시나리오를 썼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최근 들어 한국 영화계에도 속편 제작 바람이 불고 있다. 요즘의 흐름은 조폭 코미디 '가문의 위기' '두사부일체' 등 기존의 코미디류로 한정됐던 데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사진은 속편제작에 한창인 '타짜'(위)와 '화산고'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다섯번째 시리즈물로 목숨을 건 마법 대결이 펼쳐진다.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엔터
해부학 교실	
의대 해부학 실습실을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로 한지민이 주연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엔터
하울의 움직이는 성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전체 관람가 콜롬버스(상무)
택시 4	
뤽 베송이 각본과 제작을 맡은 액션영화로 총알보다 빨리 달리는 택시가 주인공이다. 12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첨단, 상무), 씨너스 전대, 하미
디센트	
동굴탐험에 나선 6명의 여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공포물.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트랜스 포머	
로봇 군단간의 대결을 그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로 마이클 베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엔터
씨노이블	
연쇄살인마가 등장하는 공포 영화. 18세 관람가.	롯데(첨단), CGV(첨단), 하미
검은집	
연쇄살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스릴러물로 황정민이 주연을 맡았다.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엔터
오션스 13	
사기꾼 일당의 유쾌한 한탕을 그린 영화로 조지 클루니, 브래드 피트 등이 주연을 맡았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제일)
슈렉 3	
못생긴 괴물 슈렉과 피오나 공주가 출연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3번째 이야기.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하미, 엔터,
황진이	
홍석중의 소설을 영화로 옮긴 작품으로 송혜교, 유지태가 주연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프리머스 광주(상무), 하미, 엔터

주목! 이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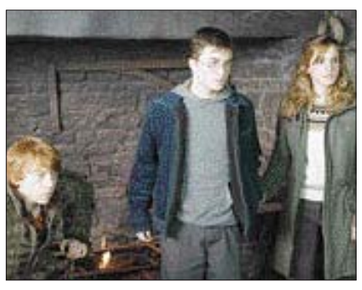
초챙과 해리의 키스신…원작 탐독 필수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해리포터'의 다섯번째 시리즈다.

소설 출간 당시 시리즈 중 가장 짜임새 있는 구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 영화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해리포터를 비롯한 주인공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가장 폭넓은 성장을 보여준다.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5번째 해를 맞이하게 된 해리포터, 헤르미온느와 론과의 관계도 소원하고 예언자 일보는 해리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해리를



곤경에 빠뜨린다.

학교로 귀환한 어둠의 마왕 볼드모트와 그를 따르는 악의 무리들과 대항하기 위해 덤블도어 교장, 시리우스 블랙과 선한 마법사들의 모임인 '불사조 기사단'을 결성한 해리는 죽음의 대결을 준비하고 그 와중에 해리는 소중한 사람의 죽음까지 맞이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

전편의 주인공들인 다니엘 래드클리프, 엠마 왓슨 등이 그대로 출연하며 개리 올드만, 랄프 파인즈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특히 적의 공격을 반사시키는 '프로테고', 장애물을 파괴하는 '리덕토', 거꾸로 매다는 '레비코푸스' 등 다양한 공격 마법이 볼거리를 제공하며 초챙과 해리의 키스신도 등장한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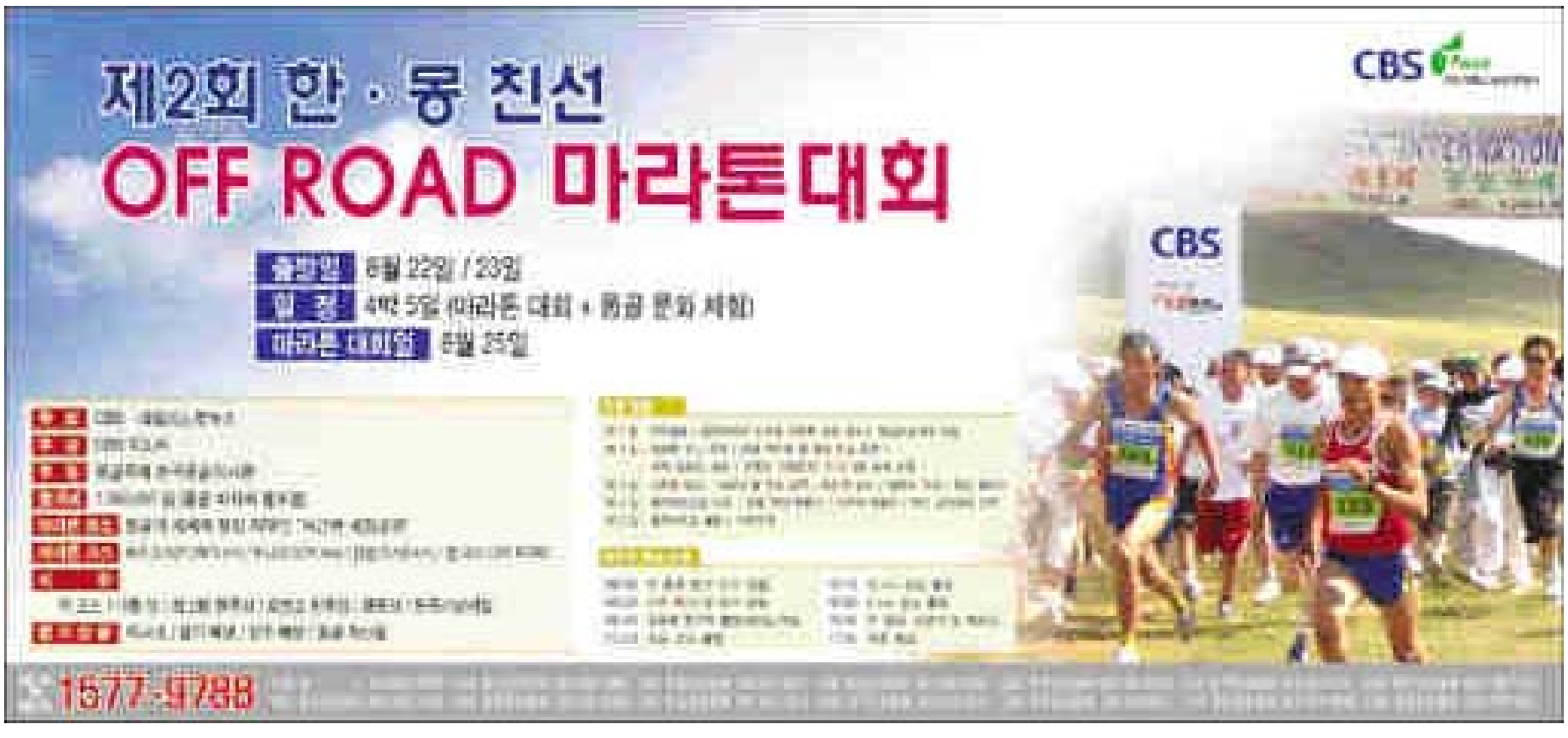
한예슬, 로맨틱 코미디로 스크린 데뷔

'용의주도 미스신' 캐스팅

드라마 '환상의 커플'을 통해 스타배우로 떠오른 한예슬(사진)이 로맨틱 코미디를 통해 스크린에 데뷔한다.

출연작품은 미모와 능력을 갖춘 싱글 신미수가 자신을 만족시켜줄 남자를 찾아 간다는 내용을 그린 '용의주도 미스신'이다.

제작사인 싸이더스 FNH는 "한예슬이 트렌디한 소재와 도도한 캐릭터가 이미지에 맞는다고 판단, 흔쾌히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의주도 미스신'은 2005년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전 우수 당선작으로 '아라한 장풍 대작전'의 조감독 출신인 박용집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